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건, 하향 조정후에 반등
- Bloomberg: 미네아폴리스 은행 총재, “셋다운이나 파업으로 금리 긴축 필요 없을 수 있어”

[미국 금융]

- WSJ: 높아진 대출 금리 비용이 리스크한 회사에 타격준다
- Bloomberg: 미 국채 수익율 급등으로 경착륙 가능성도
- CNN Business: 할부 결제 서비스 사용자들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

[부동산]

- Bloomberg: 미 모기지 22년만에 최고치인 7.41%.. 수요 줄어

[에너지]

- Bloomberg: 셰브론, “미 에너지 정책이 오일 생산 방해한다”

[전기차]

- WSJ: 포드와 GM의 불화, 미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듯

[미국 생활]

- Bloomberg: 통근 자전거, 미국에서 정착 못 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3 가지 산업계, 자동화에 준비되다
- WSJ: FTC, 독점 혐의로 아마존 고발하다
- WSJ: 코스트코, 엇갈린 고객들과 투자자들의 평가
- WSJ: 타겟, 절도로 샌프란시스코 등 폐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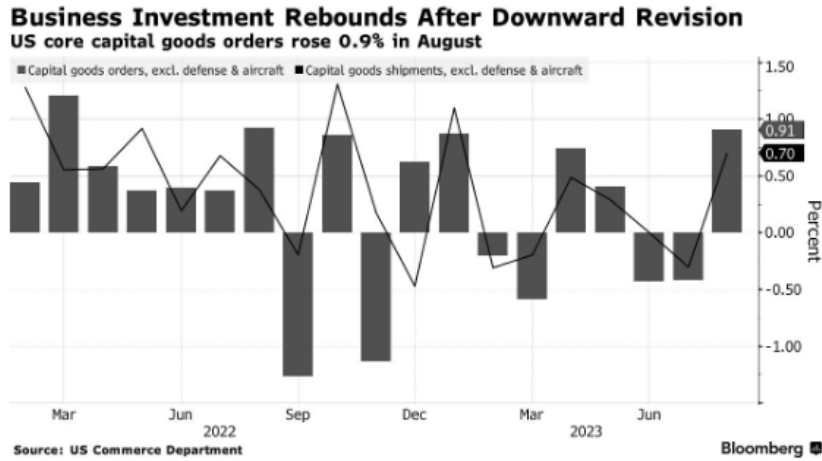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Business Equipment Orders Rebound After Downward Revision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건, 하향 조정후에 반등

-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반영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 가치가 7월에 0.4% 하향 조정된 후에 8월에는 0.9% 상승했다. 연방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다. 한마디로 올해 초 이래가 가장 큰 수치다.
- 3년이상 사용하는 모든 내구재 주문 역시 7월에 수치의 하향후에 8월에 0.2% 상승했다. 운송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0.4% 늘었다.
- 주문 건 증가는 주로 컴퓨터, 전자장비, 기계류 등이 주도했으며 전체 내구재 주문은 군사장비 19% 증가로 늘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May Do Less If Risks Like Shutdown Hit, Kashkari Says
미네아폴리스 은행 총재, “셋다운이나 파업으로 금리 긴축 필요 없을 수 있어”

-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총재인 President Neel Kashkari는 “연방정부의 셋다운이나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연준이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말했다.
- 그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확률 60%로서 경제 피해 없이 2% 목표로 낮추는 것이라면 둘째는 물가 고착으로 연준이 추가 금리하는 것이라는 것.
- 금리인상으로 기대한 만큼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더 올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올해 금리가 한차례 더 인상된후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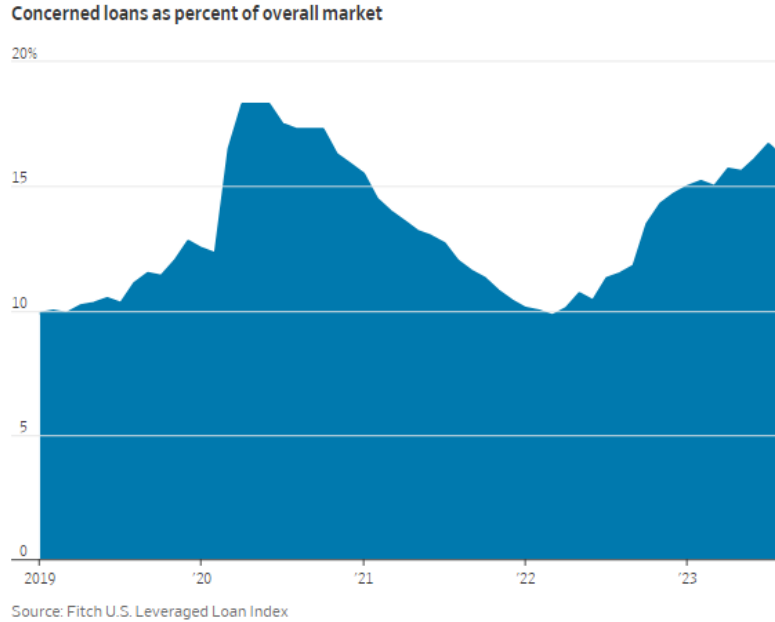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Rising Loan Costs Are Hurting Riskier Companies
높아진 대출 금리 비용이 리스크한 회사에 타격준다

- 요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지속불가능한 고금리가 은행 대출 채무 불이행을 촉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 많은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에 이른바 레버리지 용자로 알려진 초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자주 사모펀드 인수 투자나 저신용 등급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 부채는 연준의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금리에 따라 상환이 조정된다.

- 현재 1조7천억불의 이자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연준 관리들은 이같은 비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20년의 급등을 제외하고 지난 12개월간의 부채 불이행 비율은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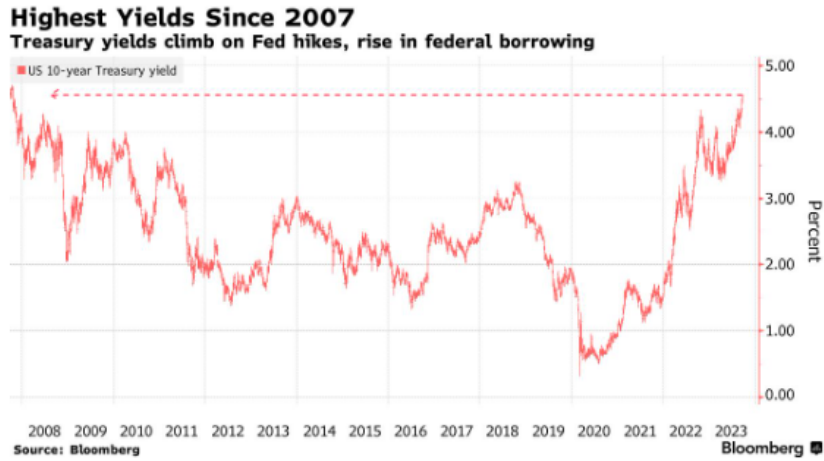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US Yield Surge Helps Fed on Inflation, But Risks a Harder Landing

미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경착륙 가능성도

- 최근의 장기 금리가 16년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미국의 연착륙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차입 비용증가는 주택 시장의 회복 불씨에 타격을 가하고 자금 조달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주식에도 타격을 주고 있어 올해 누렸던 수익을 줄이고 있다.
-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5월 중순 이후 1% 포인트 오르는 등 금리 상승은 놀라운 회복력의 미 경제를 강타하는 요소중에 하나다. 자동차 노조 파업, 섣다운 가능성, 학자금 대출 상황, 유럽 성장 정체, 중국 부동산 시장 문제도 나타났고 있다. 소프트 랜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프트 랜딩을 피할 수 있지만 4분기 성장률은 연율 1%로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다행스런 점은 연준 관리들 입장에서 수익률 상승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인플레 기대치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New York Fed: Many Buy Now, Pay Later users are financially fragile

할부 결제 서비스 사용자들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

- 뉴욕 연준이 어제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구매, 나중에 지불”의 할부 결제 서비스는 재정적으로 힘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더 큰 자금 문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 이 서비스는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로 규제가 없는 분야인데다 해당 정보가 신용 기관, 대출 기관, 은행 데이터 관리 기관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박스 상태라는 것이다.
- 이 데이터에 따르면 할부 응답자의 32.7%가 신용 점수가 620점 미만이라 신용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작년에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다.

CNN Business 기사

[부동산]

Bloomberg: US Mortgage Rate Climbs to 22-Year High of 7.41%, Curbing Demand

미모기지 22년만에 최고치인 7.41%.. 수요 줄어

- 미 모기지율이 지난주에 20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이미 침체 상황인 주택 구매 신청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 모기지부동산협회(MBA)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9월 22일로 끝나는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한 비율이 10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7.41%로 기록했다. 이와 관련 주택 구매 신청자 지수는 수십년만에 가장 낮은 144.8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Bloomberg: US Energy Policy Hindering Oil Production, Chevron CEO Says

셰브론, “미 에너지 정책이 오일 생산 방해한다”

- 오일회사 Chevron의 CEO인 Mike Wirth는 “일관성 없는 미 에너지 정책이 미 오일 생산을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그는 미 에너지 안보 서밋 행사에서 “현재 우리는 기록적인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그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에너지 정책은 환경 우려는 경제성, 신뢰성과 균형을 맞추고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관성있고, 더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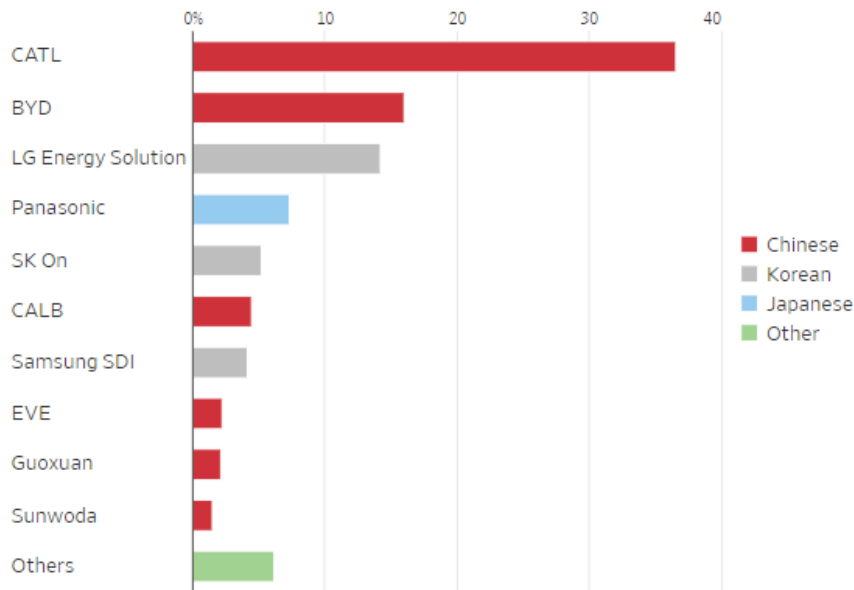
WSJ: This Ford vs. GM Feud Could Shape the Future of EVs in America 포드와 GM의 불화, 미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듯

- 6월에 포드의 최고 경영자 Jim Fairly는 의회 의원들에게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미시간 공장에서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의 기술을 따라잡는데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반면, 같은 날 GM의 CEO인 Mary Barra 와 그의 임원들은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포드의 계획이 미국 자동차 생산에서 중국의 지배력만을 키울 것이라고 말이다.

- 이들 기업과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충돌에는 오래된 라이벌인 두 기업의 자존심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 어떻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인가이다.
-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포드는 “해외 기업” 조항에서 더 융통성 있는 해석을 얻어내기 위해 의회에 로비하고 있다. 만약, 이런 포드의 계획으로 인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고 포드의 임원들은 주장했다.
- GM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포드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계약이 진행된다면, 포드가 전기차 생산 경쟁에서 기술적 그리고 비용적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GM의 경영진들과 로비스트들은 포드의 라이선스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해외 우려 기업”의 엄격한 적용을 요청했다.
- GM의 대변인은 이 사안은 GM과 포드의 문제가 아니며, GM은 새로운 세금 공제 요건을 다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명확성과 의도를 따라가길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Chinese companies dominate the market for electric-vehicle batteries

Share of global EV battery market as measured by gigawatt hours



Source: SNE Research

WSJ 기사

[미국 생활]

Bloomberg: Biking to Work Isn't Gaining Any Ground in the US

통근 자전거, 미국에서 정착 못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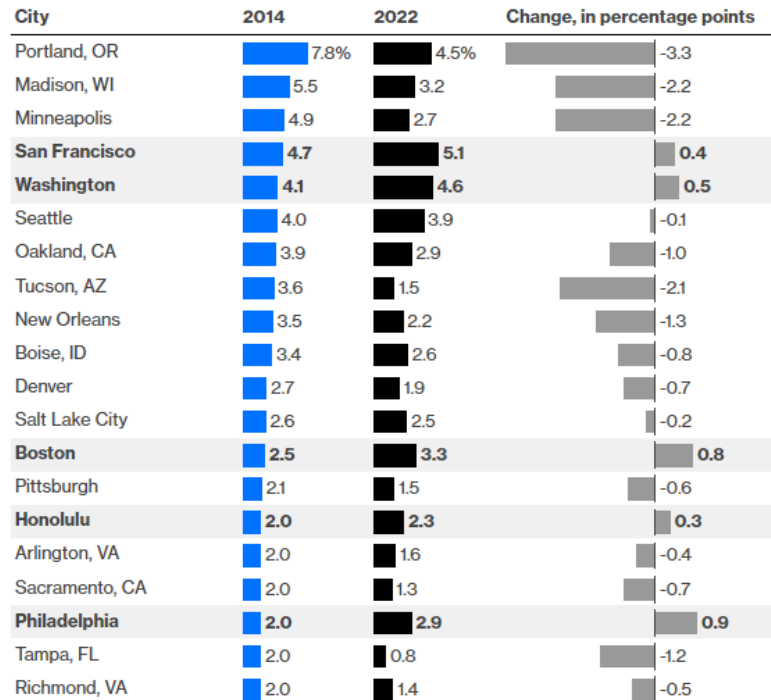
- 폭발적인 전기 자전거 판매, 팬데믹 동안의 자전거 구매 열풍 그리고 도시 공유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인프라에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연례

American Community Survey(ACS) 조사에 의하면, 출퇴근시 미국의 자전거 이용 상황은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 2022년에 대략 73만명의 미국인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7만5천여명이 감소한 수치이며 최고 정점이었던 2014년도에 비해 17만 5천여명이 감소했다.

Bike Commuting Is Down in Most Top Biking Cities

Percentage of those who commute to work who usually do so by bike



Source: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Three industries ripe for automation, according to a robotics guru
3 가지 산업계, 자동화에 준비되다

- 미국 경제에서 자동차와 물류 업계가 로봇 자동화에 상당히 투자하는 중이다.
- 그러나, 다른 산업계에서도 로봇을 이용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 자동화 업계의 전문가이자 미국 자동차 협회(Association for Advancing Automation)의 회장인 Jeff Burnstein은 1) 농업과 2) 식품 가공 그리고 3) 의료 분야에서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CNBC 기사

WSJ: FTC Sues Amazon, Alleging Illegal Online-Marketplace Monopoly

FTC, 독점 혐의로 아마존 고발하다

-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다른 17개의 주가 어제 화요일에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 판매에서 부당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아마존을 고소했다. 아마존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아마존의 라이벌 플랫폼에서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한 것이 그 이유이다.
- 연방 기관과 여러 주는 아마존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처벌하는 반 할인 정책(anti-discounting measure)을 이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 사이트에 상품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아마존의 택배 서비스 이용을 강요받았다고 덧붙였다.
- 아마존의 법률 고문 겸 공공 정책 책임자인 David Zapolsky는 FTC가 제기한 소송은 사실과 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며, 법정에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Costco Keeps Members and Investors Guessing 코스트코, 엇갈린 고객들과 투자자들의 평가

- 코스트코가 멤버십 비용 인상을 연기하는 것은 코스트코의 고객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코스트코는 어제 화요일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제외한 비교 매출이 9월에 3일에 마감된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전망과도 부합했다. 또한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매출이 5.2% 상승했다. 해당 분기 순수입은 16% 상승한 21억6천만 달러이다.
- 그러나, 코스트코의 주가는 화요일의 늦은 실적 발표 후 2%가량 하락했다. 그 이유로는 코스트코 주가 상승의 높은 기대감과 코스트코가 회원비 인상이나 특별 배당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WSJ 기사

Target to Close Stores in San Francisco, Other Cities, Citing Theft 타겟, 절도로 샌프란시스코 등 폐점

- 타겟과 같은 많은 대형 소매업체가 절도가 매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불평했다. 이제는 잦아진 절도 빈도와 더불어 직원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4개 주에 걸쳐있는 9개 매장에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 어제 화요일에 한 소매업자는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포틀랜드에 있는 매장들이 이에 해당하며, 오는 10월 21일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타겟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영업 실적과 비교해 현재의 전반적인 매출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달에 최근 기간 쇼핑객들이 식품 및 기타 필수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 정부 섣다운 우려에 다우지수 3월 이후 최대폭 하락

다우 388포인트↓...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
미국채 금리도 16년만에 최고...월가·연준 인사 "추가 금리인상 대비" 경고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면서 2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8.00포인트(1.14%) 내린 33,618.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2일(530.4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